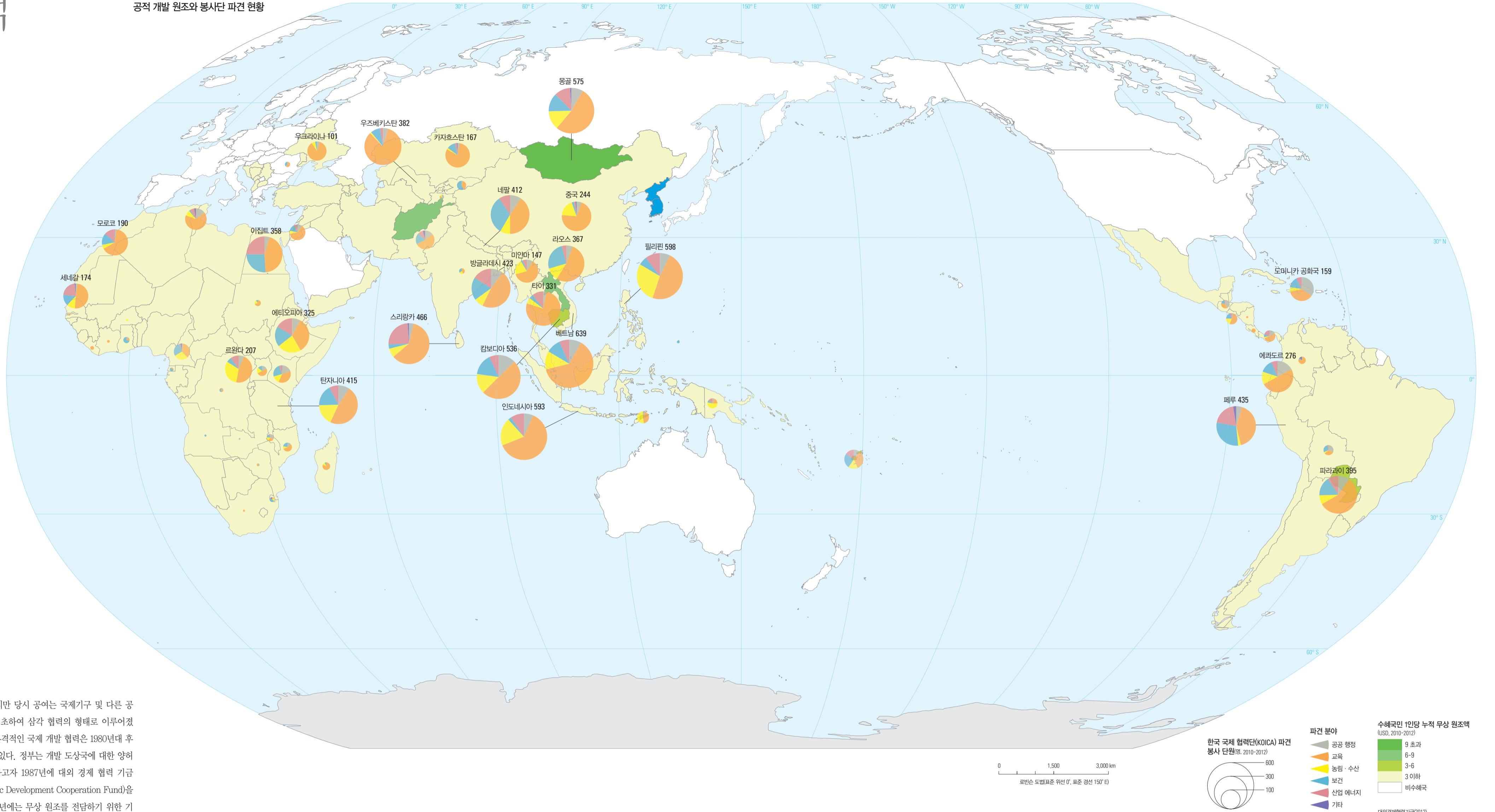


국제 개발 협력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의 봉사단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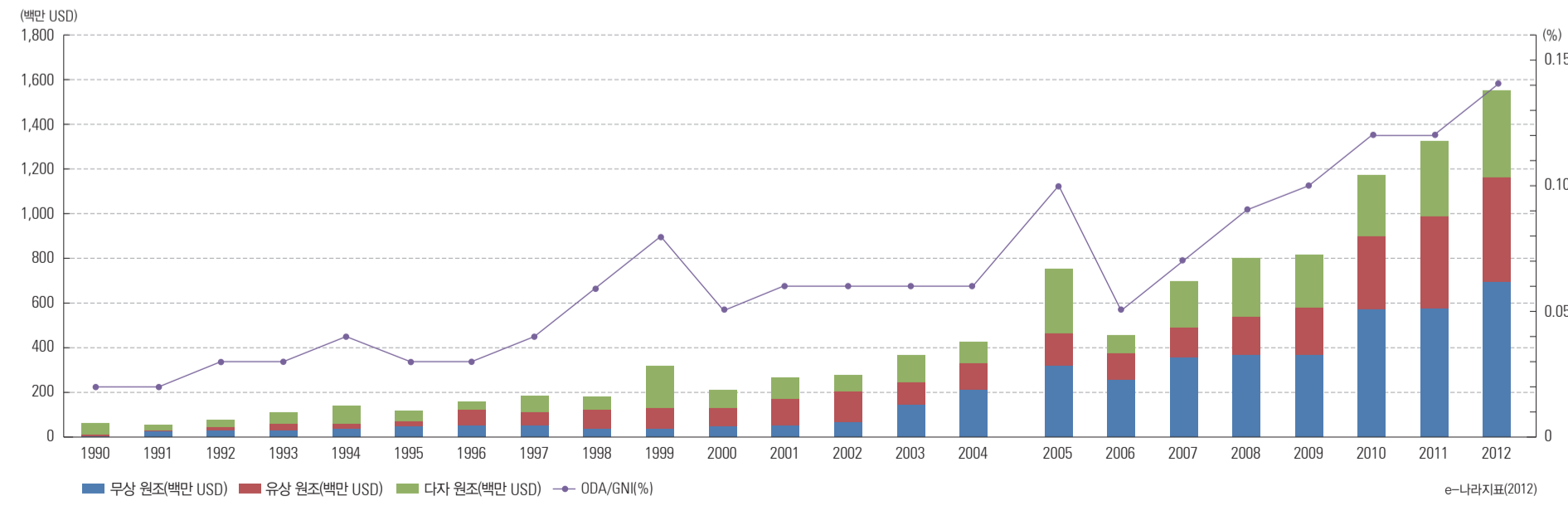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에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세계 정치 경제에서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후반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발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1985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국내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조 수원국이였다. 1945년 광복 및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85년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차관 대상국 명단과 2000년 개발 원조 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 수원국의 지위를 탈피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의 시작은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공여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하여 삼각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개발 협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1987년에 대외 경제 협력 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분야별로 그리고 수혜국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 국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각종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 국가 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한다.

유형별 ODA 추이



공적 개발 원조(ODA)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나 이들의 집행 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하였으며, 그 일원으로서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지도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제공한 수혜국 1인당 누적 무상 원조액을 보여 준다. 또한 201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세계 각국에 파견한 봉사단원을 공공 행정, 교육, 농업수산, 보건, 산업 에너지, 기타 등의 분야

별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다수의 봉사단원들이 교육, 농업·수산, 보건 분야로 세계 각지에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선은 명목 국민 총소득(GNI) 대비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그 지원 규모를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5년에 그 비율이 0.1%로 급증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남부 아시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를 돕기 위함이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은 31달러로 DAC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19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적 개발 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직접적인 지원

원을 의미하는 양자 간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출연 혹은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분류된다. 양자 간 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무상 원조와 증여율이 25% 이상 100% 미만인 유상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각각 세분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원조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2012년 수치를 보면 양자간 원조가 약 11억 6천만 달러, 다자간 원조가 약 3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7.4%와 16.0% 증가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그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무상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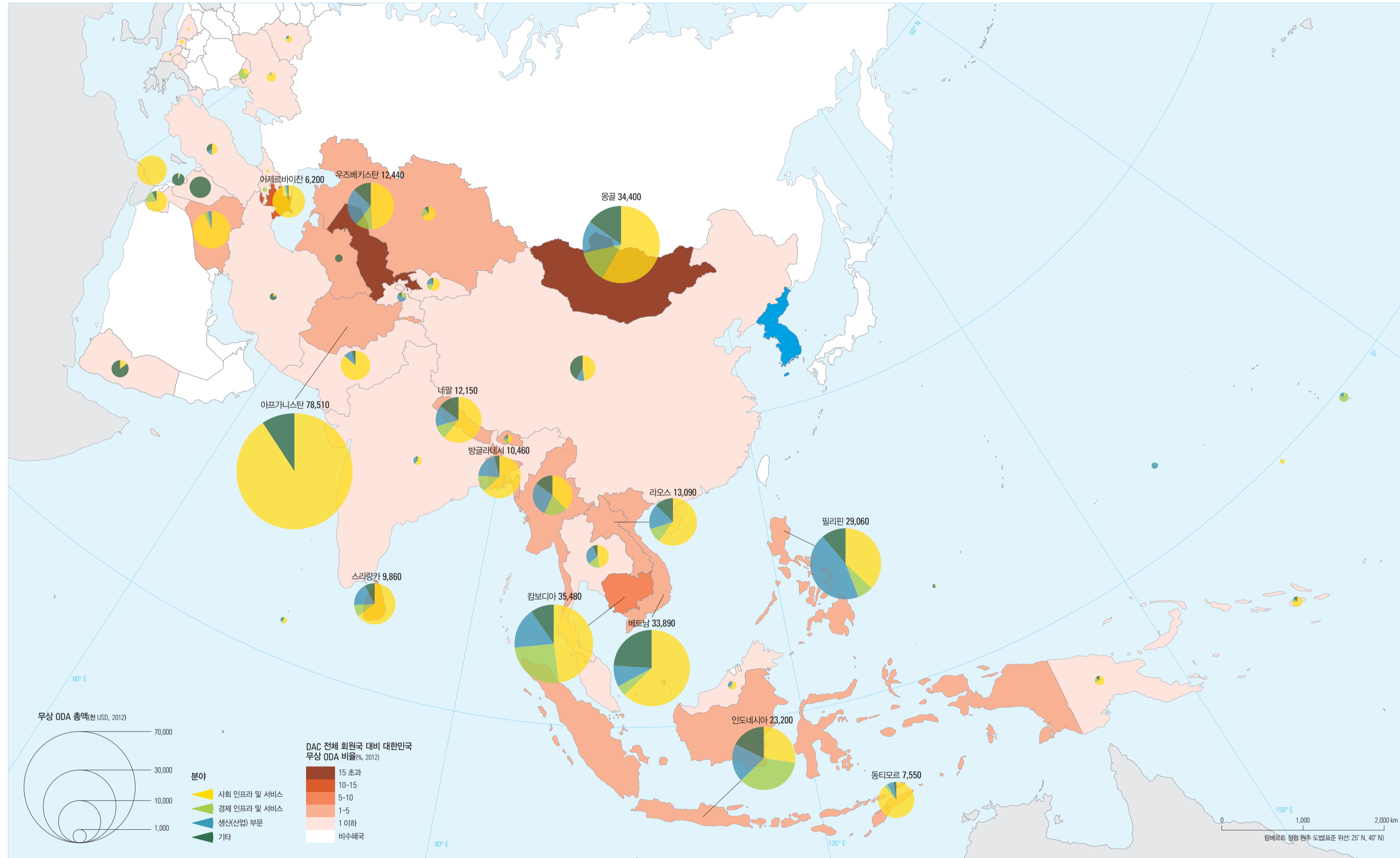
몽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 ① 식수 개발 사업(2005-2006년, 50만 USD)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2008-2010년, 166만 USD)
국회사무처 전자 문서 보관소 DB 구축 사업(2010년, 92만 USD)
- ② 축산 위생 검역 능력 사업(2004-2005년, 40만 USD)
외무부 외교 문서 DB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06년, 33.9만 USD)
재난 방지 연구 센터 역량 강화 사업(2007-2008년, 122만 USD)
울란바토르 시 지역 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2007-2009년, 500만 USD)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2007-2009년, 520만 USD)
가족 바이러싱성 질병 진단 센터 건립 사업(2007-2009년, 130만 USD)
관세 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 관세 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2008-2009년, 250만 USD)
기상청 기상 관측 보존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2008-2009년, 130만 USD)
울란바토르 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 개선 사업(2008-2009년, 70만 USD)
활호굴 지역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2008-2009년, 255만 USD)
채소 재배 온실 설치 사업(2008-2010년, 140만 USD)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2008-2010년, 166만 USD)
국회사무처 전자 문서 보관소 DB 구축 사업(2010년, 92만 USD)
직적 재산권 현대화 사업(2010-2012년, 310만 USD)
한양 기술대학교 역량 강화 사업(2010-2014년, 500만 USD)
울란바토르 시 토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2011-2012년, 270만 USD)
활호굴 사범 농장 개발 사업(2011-2012년, 400만 USD)
국가 등록 제도 정비 사업(2011-2013년, 400만 USD)
울란바토르 시 지역 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2차 사업(2011-2013년, 500만 USD)
- ③ 정보 통신 개발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수립 사업(2005-2006년, 60만 USD)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2010-2012년, 460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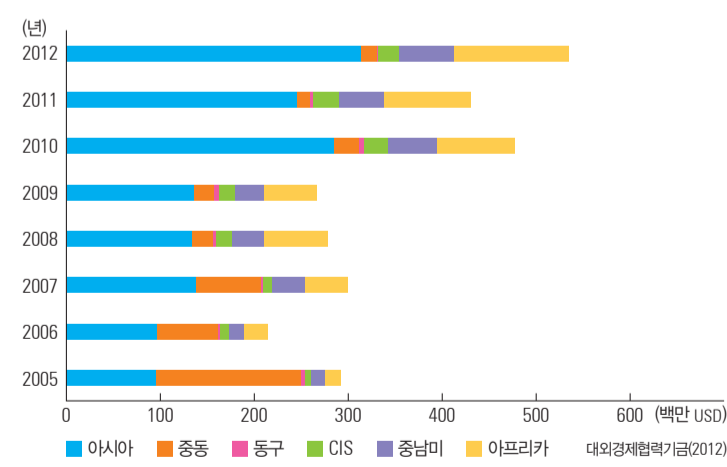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OMDG (2012)

한국 무상 ODA 지역별 추이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동, 동구, 독립 국가 연합(CIS),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제공한 양자 무상 원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원조액이 2010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거 중동에 적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주요 수혜 지역이다.

위 지도는 2012년 현재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색상은 해당 수혜국에 제공되는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O) 전체 회원국의 양자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즉,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수혜국이 받은 무상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대외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수혜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몽골,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여타 DAC 공여국에 비해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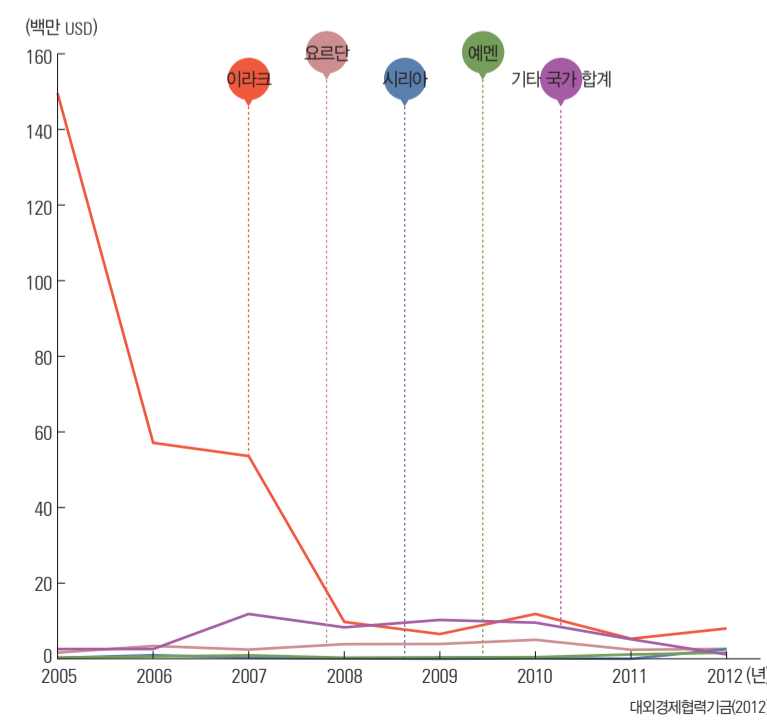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아프리카는 몽골,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원조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분야로는 사회 인프라 부문이 가장 높고, 경제 인프라 부문, 생산 부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지도에서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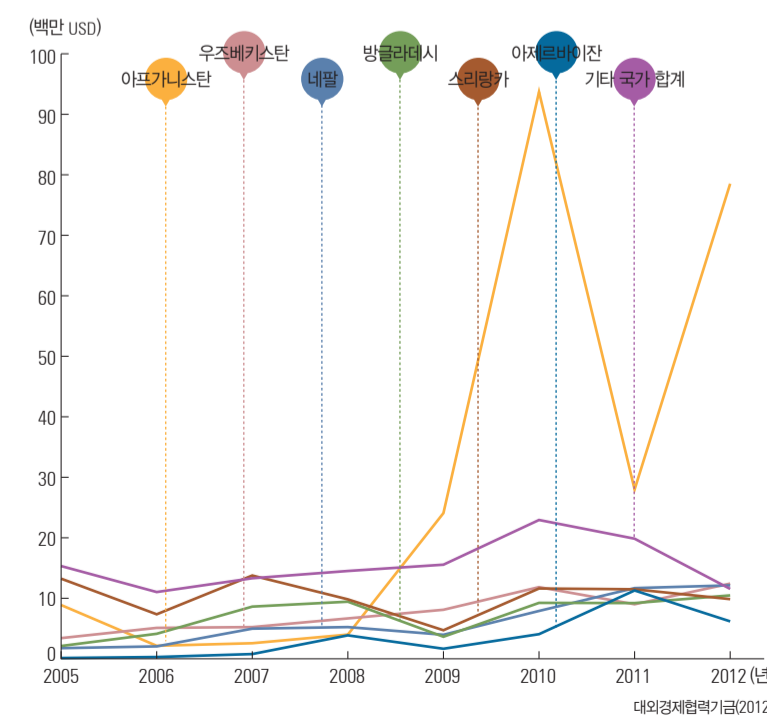
국제 협력단의 다양한 무상 원조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인구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 때문에 사업은 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에서 진행되며, 다트항 시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현지 주민의 요구에 맞게 식량, 식수 관련 분야와 정보 통신 및 기술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한편, 베트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지도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의료 서비스 개선, 정보 통신 강화, 기술 인력 파견 및 연수생 초청, 지역 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내륙 고산 지역보다는 연안 저지대, 특히 수도 하노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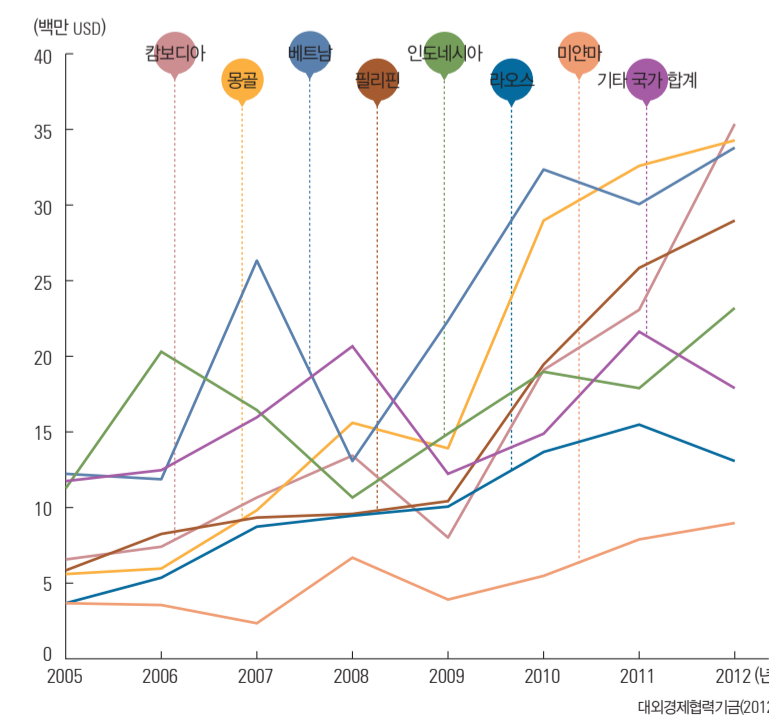
중동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남부 아시아, 동구 및 CIS 국가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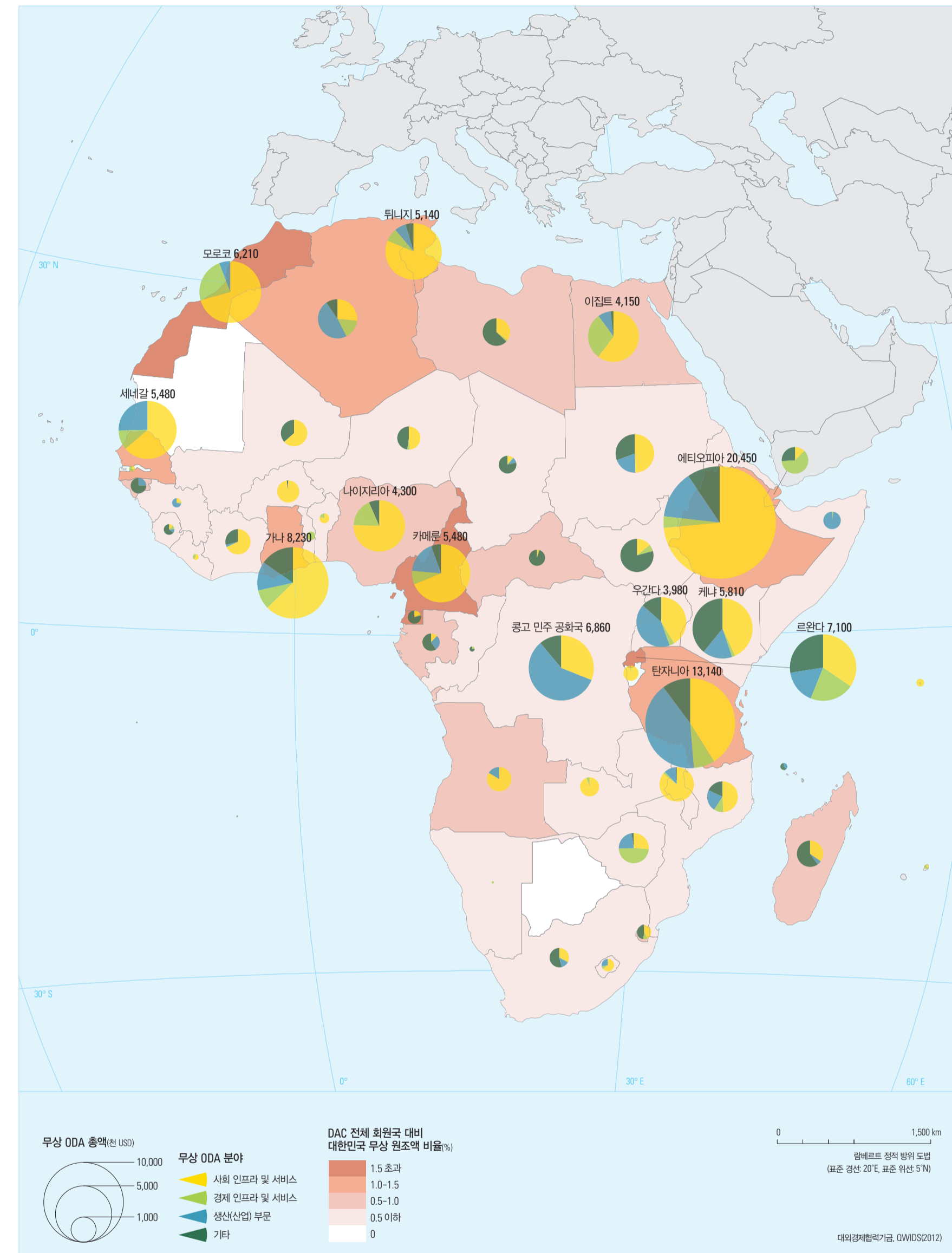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위 지도는 2012년 현재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수혜국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과 남미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그 중 카리브해 제도의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리고 남미의 파라과이가 돋보인다.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원조액 측면에서 우

리나라가 중남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임을 알 수 있다. 지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개선 사업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인프라 사업의 사례로, 페루에서 진행된 '제1 카야오 베이비스타 한·페 의료 센터 건립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39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10개 중앙 부처 간 인터넷 및 그

틀웨어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만 250만 달러가 투자되어 파라과이의 전자 정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례로 에콰도르에서 2008년 250만 달러 규모로 착수하여 2010년에 완성된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증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봉사단원 활동(페루)



지원 시설물(르완다국립대학교 ICT 공학부 건립)

지도는 2012년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 짙은 색상이 칠해졌다. 앞서 살펴본 중남미 경우와는 달리 남부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르완다에 제

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가장 우세하고, 경제 인프라 부문과 생산 부문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해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

스아바바 시에서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경제 특구 내 ICT 혁신 센터를 건립하여 인력 양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